

중국 근현대건축에 표현된 민족건축양식의 수법과 그 교훈

한동수(한양대 건축디자인대학원 조교수)

이리형(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1. 서언

중국의 건축계는 1840년 아편 전쟁을 겪고 난 이후 근대건축의 노정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전에 부분적으로 서양건축의 형식을 답습하거나 그 영향 하에서 지어진 건축물¹⁾이 있기는 하였지만 본격적인 근대건축이 시작되는 시점은 바로 이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전통적인 중국건축의 구조재료였던 목재와 벽돌의 한계로부터 벗어나 철근콘크리트와 시멘트, 철골 등의 새로운 재료를 도입하고 구미 각국에서 서양의 건축술을 배운 유학파의 건축가들이 중국에 유입되면서 우선적으로 부딪혔던 갈등은 ‘중국건축의 외관과 구조적인 특성을 어떻게 새로운 재료를 통하여 반영하여 표출하는가’라고 하는 외관의 양식적인 문제였다.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된 중국건축의 독특한 형태적인 특징 때문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지붕의 형태와 공포라고 하는 특수한 구조부재, 화려한 색채와 문양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후 여러 차례의 파고를 거치면서 때로는 사회 각 분야의 힘을 얻어 건축계의 주류를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혹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에 의한 탐색과 실험의 과정에 놓여 있다. 그것은 실제 설계에 임하는 건축가의 이상과 비평가의 관점, 일반대중과 관료들의 의식이 적절한 공통분모를 얻지 못한 채 각기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돌이켜 보면 우리 역시 중국의 건축계와 비슷한 경험을 한 바가 이미 있다. 과거 경복궁 안에 지어진 국립박물관(현 민속박물관), 부여 박물관,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등의 사례에서 건축계 내부에서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찬반양론의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고 ‘한국적인 건축의 실현’이라는 대전제로부터 많은 건축가들이 번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어떤 하나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우리 보다 비교적 오랜 연원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국의 건축계의 상황을 검토해 보고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살펴봄으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옥철도역사의 의미를 찾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1) 이러한 예로서는 북경의 서북쪽 교외에 위치한 황가원림 원명원의 서양루 건축군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예수회 선교사에 의해 설계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2. 중국 건축계에서 민족건축양식에 대한 논쟁

2-1 1930년대와 1950년대의 논쟁

1930년대 중국민족건축양식의 취사선택은 광범위한 실천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건축계는 이것을 '중국 궁전식 건축'이라고 불렀는데 혁신파와 전통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혁신파는 비경제적인 요소와 시대의 요구와 기능에 부적합한 공간성격, 건축형식의 번잡함으로 인한 중국전통건축의 모순론을 제기하는 동시에 교토의 발달, 문화의 전파로 인한 국제간의 동일양식의 필연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중국건축은 단지 세계건축의 일부분으로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고 자신의 건축적 특색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할 필요가 없으며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새로운 기술과 재료는 또다시 특색을 가진 중국건축의 새로운 황금시대²⁾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자신 있게 밝히고 있다. 반면 전통파는 전통건축이 비록 시대에 부적합한 모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과학적인 방법과 현대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의 기초 하에 '중체서용(中體西用)', '서체중용(西體中用)'의 절충식 중용론을 펼쳤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서구화된 건축은 중국민족 전부를 말살하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이러한 두 개의 대립된 건축관은 서로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의 그리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 최초의 국제적인 건축공모전의 개최이다. 그것은 손문의 무덤을 남경에 만들기 위한 것으로 당선작은 중국인 건축가 여언직의 것으로 그 내용의 요체는 전통파의 견해를 받아드리고 있다. 또한 1930년에 국민정부의 수도였던 남경의 도시계획과 신축된 일련 공공건축 역시 민족양식의 기반 하에 구축되었으며 중국의 동북삼성을 점령한 일본에 의해 허수아비국으로 세워진 만주국의 수도계획과 건축설계 역시 동서양 건축을 절충시킨 홍아식, 부홍식의 양식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반면 국제도시 상해에서는 다양한 서양식 건축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서양 건축가들에 의해 조계지를 중심으로 각국의 근대건축양식이 소개되어 다른 지역으로의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이후 1950년대에 들어서 전개된 민족형식에 대한 논쟁은 수많은 정치술어 및 행정 명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논쟁의 핵심은 여전히 1930년대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대표적인 건축가이자 역사학자인 양사성은 구시대의 대옥정(大屋頂³⁾)과 모종의 기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관점에서 과거 건축의 문법을 모방하여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민족양식은 이미 현대생활과의 거리를 좁힐 수 없었으며 일종의 미관과 역사 의미를 지닌 형식이 되었다. 그러므로 건축가들은 이러

2) 이러한 결과를 주장하는 근거로서 이들이 예로 든 것은 불교문화로서 인도로부터 중국에 수입되어 독자적인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3) 대옥정은 중국전통건축의 지붕형식을 지칭하는 말이다.

한 중국 특유의 양식수법 처리에 정력을 집중시켰으며 특히, 경제기술의 제한된 조건⁴⁾ 하에서 혁신과 변통⁵⁾을 해야만 했으므로 전통양식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었다.

1950년대 초기 대옥정으로 대표되는 민족건축양식의 남용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구나 대약진 운동⁶⁾과 문화대혁명⁷⁾을 거치면서 그 비판은 정치운동의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건축계는 절약을 전제로 한 일반 대중건축의 대량생산, 민족건축양식의 적용범위 축소라고 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2-2 1980년대의 논쟁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는 문화대혁명의 사상적 고통에서 벗어나 현대화, 신시대를 동경하고 민족형식의 정치화를 반대하며 새로운 경향을 추구하려는 강렬한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사상의 주요 틀은 역시 내용과 형식의 문제로서 마르크스, 엥겔스가 쓴 사회주의 경전의 도움을 받아 형식주의를 반대함으로써 민족양식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민족양식에 대한 반대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1950년대의 대옥정의 낭비문제는 건축형식의 민족화에 대한 탐색의 일환이며 단순히 복고에 대한 단죄론으로 볼 수 없다는 건축계의 인식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복고주의의 견해는 건축예술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불가능하며 정치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전통양식의 사용은 민족형식의 부흥이지 복고주의는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정치이론이 예술이론을 대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형식과 내용의 문제는 건축의 주요 이론경전에 분명히 열거된 '견고, 실용, 유헤'라고 하는 3대원칙으로 본다면 건축양식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실제 건축의 설계에서 건축가는 기능을 만족하고 기술의 요구 하에서 최종적으로 형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평면과 볼륨은 서로 다른 스타일의 형식이라는 옷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대옥정은 죽을죄를 지은 것으로 비판할 수 없으며 그것을 충실히 연구하고 개조하여 정수가 되는 부분을 보존하며 낡은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4) 중국은 1949년 공산정부를 수립한 이후 소련의 원조 하에 경제력을 추스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 각 분야에 파견된 소련의 고문단은 중국건축계에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건축설계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 소련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중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5) 건축에서 혁신과 변통을 대변하는 것은 모택동이 주창한 '사회주의 건축의 내용과 민족형식'이었으나 이것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자본계급과 무산계급이라고 하는 정치투쟁의 틀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6) 1958년부터 1960년까지 전개된 대규모 수리 시설건설과 공업의 기본건설운동이다.

7) 1962년부터 1972년까지 10년간 전개된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으로 사회전반의 기본체계가 무너지고 혼란의 상태에 빠져 건축생산을 비롯한 사회전반의 활동이 거의 중단되었다.

2-3 1990년대의 논쟁

199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중국의 건축계는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의 유행과 더불어 서구사회에 대한 동경과 보수주의로 돌아서 전통파가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다원화의 문화패턴 속에서 혁신파와 대등한 발전의 길을 얻게 되었다. 나아가 민족양식은 건축예술의 주류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패권을 차지함으로써 대형공공건축과 중요문화시설에서 우선적인 양식으로 선택되었다. 하지만 실제 건축작품에서 건축가들은 역사 맥락과 은유적인 부호의 가치경향을 강조하였으나 민족양식은 신건축에서 오히려 낙후함을 피할 수 없었다. 원인은 사회발전과 전통의 변화인 것이다. 상업주의 문화는 이 시기의 건축사조와 인과작용을 일으켜 혼동 속에 다원화의 결과를 가져왔다. 상업적인 건축의 색채가 날로 농후해지면서 충동적인 제작과 명분에 매달리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건축양식을 상표화하여 마구잡이로 내다 팔게 되므로 심도 낮은 상품의 범람을 초래하였다. 또한 건축은 이제 하나의 소비품으로서 시장의 요구와 유행에 좌우되었고 건축가는 과거처럼 정부주도 하에 일정하게 배분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시장에서 최대한의 점유량을 확보하여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고객의 입맛을 맞추는 중재를 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진 본래의 시대 비판정신에 위배되는 길을 가고 말았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 후기 공업사회의 산물로서 아직 충분한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국의 상황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중국의 복고주의를 접목시키는 것은 잘못된 연결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여기에 부가된 것은 민족건축양식에 대한 비전문가들의 그릇된 관념 또한 건축물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원인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질 낮은 전통건축재료의 양산과 건설현장의 공인(工人)도 일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민족건축양식에 대한 표현수법

중국에서 전개된 민족건축양식의 수법은 대부분 형식에 대한 문제로 귀착된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직설적인 인용을 통한 재현이고 다른 하나는 형태의 변화를 시도하여 단순화 또는 이미지화 내지 국부적인 적용을 통한 추상적 변형이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는 다시 장소와 형태면에서 구체적인 역사성을 반영하여 옛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복원방식(復元方式)과 형태의 전체를 도용한 방고방식(仿古方式)이 있다. 복원방식은 현존하지 않는 건물을 발굴과 역사고증을 통해 원형을 추적하여 재현하는 방식으로 북경의 유리창거리나 이화원의 소주가, 악양루 등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그리 방고방식은 장소성은 무시하고 일정한 역사시기의 건축외형을 그대로 모방하여 필요한 기능에 따라 건축하는 것으로 양사성 설계의 감진화상기념

관, 남경의 도서관과 박물관 등 일련의 공공건축물, 최근 각지에 조성된 전통거리가 대표적인 실례들이다.

추상적 변형은 현대건축의 성격을 전제로 전통적인 건축요소를 일부만 직접 차용하는 국부방식(局部方式), 부분적인 차용을 하되 변형을 통한 이미지의 전환방식(轉換方式) 하는 서구양식과 결합시켜 구축하는 혼용방식(混用方式) 등이 있다. 국부방식으로 대표적인 것은 건국 10주년을 기념하여 지어진 10대공정의 하나인 인민대회당, 역사 혁명박물관이 있고 전환방식은 최근 북경의 장안대로의 양측에 무수히 들어선 일련의 상업성 고층빌딩과 국가 기관들이 있으며 혼용방식은 근대시기 상해의 외탄지역과 조계지에 세워진 상업성의 건물들과 중국 최초의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으로 인정되는 북경의 향산호텔을 비롯하여 최근에 완공된 북경대학 중앙도서관, 북경서부기차역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방식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되었으며 시대적으로 어떠한 형식이 먼저 등장하고 어떤 형식이 나중에 등장하였는지는 선후의 관계를 따질 수는 없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앞서 언급한 방식들이 동시에 출현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다만 이미지의 전환방식은 개혁개방 이후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중국의 사례로 본 한옥철도역사의 건립의 전제조건들

지역건축의 특징을 살려 새로운 기능의 건축에 적용하는 사례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의 경우 서구의 종교들이 전래되면서 선교사들에 의해 교회건축이 이러한 예를 따른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적지 않은 실례들이 등장했고 1970년대 제3공화국에서 제창한 한국적인 이미지의 강조와 더불어 논쟁을 일으킨 건축물들이 세워진 바 있다. 특히 전통건축과 현대건축 사이의 이질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강한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접목이 매우 어려운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건축계의 오랜 쟁점 가운데 하나인 형식과 내용의 문제에서 어느 것을 우선으로 삼는 것이 옳은 일인지의 결론도 선불리 내릴 수 없다. 형식과 내용은 어쩌면 영원히 평행선을 그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단지 근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현실에서 나타난 민족양식의 구현문제를 참고로 우리 한옥철도역사의 건립을 위한 몇가지의 전제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고려를 피할 수는 없다.

첫째, 지어질 대상지역에 대한 건축적인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주변과 전혀 이질적인 것이 들어설 경우 초래한 다른 건축과의 불협화음의 문제이다. 건축은 사회적인 산물이고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반드시 인접한

또는 도시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할 때 비로소 그 건물의 가치는 빛이 나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옥철도역사의 건립이 특정한 집단과 특정인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점이다. 중국의 북경서부기차역의 경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원래 건축가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지방에 대옥정이 올라간 것은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작용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장관의지의 산물이라고까지 비하하고 있는 것을 귀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건축물의 설계는 전적으로 건축가의 창작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건축가의 창작의지가 배제될 때 그 건축물은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엉뚱한 건물이 되기 십상이다. 우리나라의 현상설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각 분야의 종합적인 의견청취가 필수적이다.

셋째, 한옥철도역사를 짓는다면 그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되고 방법은 어떠한지 합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부분을 한옥의 구조와 형태를 모방하여 지을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적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구현방법은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없다면 그것은 낭비에 불과할 것이다.

넷째, 적절한 명분과 시대적인 흐름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한국적 건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기 시작하였다. 과거 몇 차례 이러한 논의의 봄이 일었던 적이 있었고 그 때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곤 했다. 아직도 이러한 건축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건축계 내에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왕에 한옥철도역사를 건립한다면 시대설정과 그 시대에 맞는 철저한 고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기존에 지어진 현대식 한옥건물을 보면 사용된 건축어휘가 엉터리인 것이 많다. 지어진 건물은 마땅히 교육적 효과가 있어야 하고 전통건축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중국현대건축사>, 추덕의, 천진과학기술출판사(천진), 2001년
- <20세기 중국근대건축의 변천>, 한동수, <건축인> 연재물, 1999년 10월-2000년 3월
- <當代中國建築中的傳統樣式>, 강용, 청화대학건축학원 석사논문, 1996년
- <中國古典式樣新建築>, 부조경, 남천서국(대북), 1993년